

##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b>Linux</b> / 하  Ubuntu 사용 중 Pintos 프로젝트 - 포트폴리오 첨부 주요 텍스트 편집기 : vi
<b>MY-SQL</b> / 중  Java, Javascript에 연동해서 사용
<b>Spring Framework</b> / 중  소규모(4인) 프로젝트 진행 - 포트폴리오 첨부
<b>JSP</b> / 중  프로젝트에 필요한 페이지 제작 - 포트폴리오 첨부
<b>HTML5</b> / 하  프로젝트 진행 포트폴리오 제작
<b>C, C++</b> / 상  프로젝트 수행 - 포트폴리오 첨부 코딩테스트
<b>Python</b> / 중  Deep Learning & Reinforcement Learning 연습 - Github
<b>Java</b> / 중  프로젝트 진행 - 포트폴리오 제작 Android 연습

##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portfolio.zip   24MB

## 자기소개서

## [성장과정]

1학년 때 처음 코딩을 할 때, 다른 과목들과 달리 실용적이고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분야라서 코딩 실력에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잦았는데 시간 날 때 "프로그래머스" 같이 여러 가지 코딩 문제들이 있는 사이트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며 실력을 길렀습니다. 저번엔 이 사이트에서 주최한 모의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C++와 allegro5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뱀 게임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네트워크를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소켓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2인용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으나 네트워크 Sync를 맞추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소켓 프로그래밍을 써서 각 플레이어의 입력을 주고받았는데 latency 문제 때문인지 캐릭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 WIS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구경하기도 했고 대학교에서 개설한 IoT 특강에 신청해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기상 센서나 스마트 가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비전공자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 코딩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쓴다는 것 빼고는 특이할 게 없었지만, 쉽게 이것저것 만들어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Edwith와 Youtube에서 Deep Learning과 Reinforcement Learning 관련 공부를 하고 Kaggle에 문제를 풀어보고 간단한 게임 AI를 제작했습니다. 학교 기계 학습 수업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다시 공부할 겸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궁금한 게 더 생기고 신기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간단한 게임 AI까지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비지원교육에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MySQL, Spring Framework, HTML, JSP, Javascript를 활용해서 웹 사이트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이고 웹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제작하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사회경험]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학생과 조를 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조 한국 학생들은 처음엔 영어를 쓰면서 같이 대화했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진행이 막히자 점차 한국인끼리 한국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조모임 단톡방에서도 종종 한국어를 쓰곤 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걸도는 모습이 종종 보였는데, 이 수업에선 조원 모두 발표를 해야 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외국인 학생이 참여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부분의 한국어 대화와 단톡방에서 나왔던 채팅들을 통역해주었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외국인 학생이 영어를 잘해서 금방 이해하였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학생이 잘 참여해줘서 별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조모임 시간이 저녁 시간 이후로 결정되자 외국인 학생이 저녁 식사를 같이 먹고 조모임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조원들 모두 동의하였으나, 막상 당일이 되자 한국인 학생들이 핑계를 대며 저녁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화하는 게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약속을 깨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와 외국인 학생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학생은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그 학생의 뛰어난 발표 실력으로 과제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